

퇴계 이황의 『대학』 해석에 있어 특징적 면모*

이 현 선**

주제분류 한국철학, 유학, 경학

주요어 이황, 대학(大學), 경(敬), 대학개정설, 격물보망장

요약문

이 글은 퇴계 이황의 『대학』 해석의 특징적 면모를 경학사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그의 『대학』 해석 관점이 공부론에 있어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이황은 주희의 『대학장구』를 전적으로 옹호하면서 이를 의문시하면서 개정을 시도하는 경학 흐름을 비판한다. 그는 주희의 「격물보망장」의 의미를 강조하는 가운데 『대학』의 공부가 궁극적으로 여타 경전에서 제시된 공부와 마찬가지로 ‘敬’공부를 제일의 내용으로 삼는다고 본다. 이황은 『대학』 개정을 시도하는 논의들이 「격물보망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이는 곧 주자학의 ‘격물치지’ 공부론 함의를 파악하지 못한 데에서 온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격물치지’ 공부에 대해 비판적인 당시 탈주자학적 사조와 그 영향을 배제하고 주자학 본연의 공부론을 재구축하고자 한 이황의 학문적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이황의 관점에서 드러나는 『대학』 해석의 특징적 면모는 『대학장구』에서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경’ 개념은 구체적 공부의 맥락 속에서 이끌어내면서, ‘격물치지’ 공부를 적극적으로 ‘경’공부와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8058894).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7S1A5B8058894)

** 서울대 철학과 강사.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퇴계 이황의 『대학』 해석의 특징적 면모를 경학사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그의 『대학』 해석 관점이 공부론에 있어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대학』은 주희의 『대학장구』 성립 이후 신유학의 공부론에 있어 핵심 텍스트로 간주되어 왔다. 특히, 주희의 「격물보망장」에 기반한 ‘격물치지’ 관련 논의는 이후 신유학 사상가들이 자신들의 공부론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는 데 준거가 되었다. 즉 주자학의 정통 노선을 견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는 이 『대학』의 ‘격물치지’에 대해 주희의 관점에 동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대별될 수 있다. 말하자면, 주희의 『대학장구』 체제의 수용 여부는 신유학자들의 학문적 성격 및 향방을 짐작케 하는 주요 잣대인 것이다.

경학사적 맥락에서 주희의 『대학장구』를 둘러싼 첫 번째 논점은 본래 『禮記』의 한 편이었던 『대학』(이하 『고본대학』으로 지칭)¹⁾이 과연 주희의 입장처럼 착간(錯簡)과 결문(闕文)을 가진 것²⁾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주희 이후의 신유학자들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주희의 『대학장구』 체제를 그대로 수용하는 입장으로서, 『고본대학』에 착간과 결문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 입장의 대표자로 권근과 이황을 다룬다. 이들의 장구 체제 옹호는 동시기 중국에서 유입된 『대학장구』 개정론, 특히 「격물보망장」 대신에 격물치지의 傳文을 『고본대학』에서 구하는 입장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는

- 1) 『예기』 42편에 수록된 「대학」은 後漢의 鄭玄(127-200)의 注와 皇侃(488-545)의 疏, 그리고 唐의 孔穎達(574-648)의 疏로 구성된 『十三經注疏』 『禮記正義』에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칭하는 『고본대학』은 이 『예기정의』에 실린 「대학」편을 가리킨다.
- 2) 주희는 『大學章句序(대학장구서)』 말미에서 이 책이 방실(放失)된 부분이 있어 편집하면서 간간히 자신의 뜻을 덧붙인다고 말한다. “顧其爲書猶頗放失, 是以忘其固陋, 采而輯之, 間亦竊附己意, 補其闕吳, 以俟後之君子.”

『대학장구』의 3강령·8조목 체제를 수용하면서도, 『고본대학』에 착간이 있을 뿐 꺾문은 없다고 보는 입장³⁾이다. ‘치지재격물(致知在格物)’에 대한 傳文을 “知止而后有定”이하의 구절에서 찾는 이 입장은, 宋代 동괴(董槐, 1187-1262)·왕백(王柏, 1197-1274), 明代 송렴(宋濂, 1310-1381)·채청(蔡清, 1453-1508) 등의 학자들에게서 나타나며, 조선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언적(1491-1553)이 이들과 같은 맥락의 입장을 취한다. 셋째는 주희의 『대학장구』 체제를 전면 거부하고 『고본대학』이 착간이나 꺾문 없이 완비된 저술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 입장의 대표적 학자는 바로 明代 왕수인이다. 이후 양명학 계열의 清代 학자들이나 조선의 탈주자학적 관점을 가진 학자들, 예컨대 윤희, 정제두, 정약용 등이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황은 이러한 『대학』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조선 내에서 분출하던 시기에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받았고, 주희의 『대학장구』를 전적으로 옹호하면서 여타 『대학』 개정설을 배척한다. 이러한 이황의 입장은 주희의 『대학』 해석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연구는 이황의 『대학』에 대한 관점을 경학사적 맥락에서 부분적으로 다룰 뿐, 그 의의와 특징적 면모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최석기는 이황이 주자학에 자신의 학문적 준거를 두었기 때문에, “주자학을 종주로 하면서 사상의 순정성을 강조하여 주희의 설에 어긋나면 이단으로 비판하였다”고 한다.⁴⁾ 하지만 이황이 『대학』 개정설을 비판하며 주희 해석을 옹호하는 구체적 논의 맥락을 살펴보면, 그가 단순히 주희의 주석과 설명을 반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대한 자신의 독자적 해석과 관점을 표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황의 『대학』 해석에서 특징

3) 이 글에서는 첫 번째 주희의 입장을 ‘꺾문설(闕文說)’, 두 번째 입장을 ‘착간설(錯簡說)’로 통칭하겠다.

4) 최석기, 『조선시대 『大學章句』 改定과 그에 관한 論辨』, 보고사, 2011. 409-410쪽 참조.

적 면모는 그의 『성학십도』에서도 보이듯이, ‘경(敬)’을 주요 공부 내용을 삼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면모는, 물론 주희와 근본적으로 차별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황이 『대학』 개정설을 비판하는 가운데 ‘격물치지’와 「격물보망장」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강조하면서 이를 ‘경’과 결부시켜 논의하는 데에서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우선, 『대학』 개정설에 대한 이황의 비판적 입장을 경학사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아울러 이를 ‘격물치지’ 공부에 대한 이황의 논의와 ‘경’공부를 위주로 하는 그의 『대학』 해석의 특징적 면모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2. 『대학』 해석의 문제

2.1 주자학 위주의 경학 - 사서(四書)와 『대학』

이황의 경학은 사서(四書)를 위주로 하는 주자학을 종주(宗主)로 삼아, 전반적으로 주희의 경전 해석을 따르면서 그의 집주(集註)와 장구(章句) 체제에 대한 극도의 존승을 표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주희 선생이 집주(集註)와 장구(章句)를 집필하였는데, 완성된 후에 스스로 그 잘못을 깨닫고 고친 것이 있고, 문인들의 문의로 인해 고친 것이 있으며, 당시 뛰어난 사대부들에게 질정하여 고친 것이 있다. 고치고 또 고치면서, 이것을 죽을 때까지 일로 삼았다. 그러므로 이 책들의 출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도 어그러지지 않고, 귀신에게 질정해도 의심할 것이 없으며, 백대동안 성인을 기다려도 의혹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것이 어찌 하루아침에 갑자기 만들어 이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겠는가?⁵⁾

5) 『退溪集』 卷12, 「여박택지(與朴澤之)」, 朱子之爲集註章句也, 旣成之後, 自覺其非而改者有之, 因門人問難而改者有之, 質之當世之賢士大夫而改者有之. 改之改之而又改之, 蓋以是終身焉. 故其書之出, 可以建諸天地而不悖, 質諸鬼神而無疑, 百世以俟聖人而不惑焉. 此豈一朝率然爲之而能至是哉?

주희의 사서집주 체제에 대한 이러한 존숭은 당시 명(明)으로부터 유입된 탈주자학적 해석과 이로 인해 조선에서 제기되는 여러 경학적 논란 속에서, 철저히 주희의 관점에 입각할 것을 주창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서의 내용과 구성이 비록 그 저자와 출처, 그리고 강조되는 개념들이 상이함에도, ‘성인되기’를 주요 과제로 삼는 유학의 핵심이 주희의 주석을 통해 일관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황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학』은 德에 입문하는 책으로 배우는 자의 일이다. 『중용』은 도를 밝히는 책으로 가르치는 자의 일이다. 『논어』는 道에 입문하는 책으로 仁으로 돈독하고 義로 넓히는 것이며, 『맹자』는 道를 지키는 책으로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하는 것이다. 『대학』·『중용』·『맹자』는 모두 誠을 말하지만, 『논어』는 誠을 말하지 않고, 『논어』·『중용』·『맹자』는 모두 中을 말하고 있는데 『대학』은 中을 말하지 않는다. 대체로 『논어』는 사람들에게 도에 입문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恭敬忠恕로 말한 것은 모두 誠의 의미이다. 『대학』은 초학자가 德을 진전시키는 기틀이어서, ‘止於至善’으로 요약된 것은 모두 中의 일이다.⁶⁾

이황은 사서를 德에 입문하는 초학자부터 道를 완성한 성인에 이르기까지 주요 공부처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간주한다. 여기에서 이황의 특징적 면모는 이러한 사서 체제에서 주요 공부를 『대학』을 통해 제시하며, 이를 최종적으로 ‘경(敬)’공부로 수렴시킨다는 데 있다. 그는 ‘성학(聖學)’, 즉 ‘성인되기’를 추구하는 유학의 규모를 제시하는 『성학십도(聖學十圖)』의 10개 주제가 모두 ‘경’공부로 수렴된다고 주장하며, 특히 「대학도」를 논의하는 가운데 8조목이 『논어』, 『맹자』, 『중용』의

6) 『퇴계집』 遺集, 卷7 「外篇」 <사서총론조목(四書總論條目)>, 大學入德之書而學者之事也. 中庸明道之書而教者之事也. 論語入道之書而敦乎仁博乎義. 孟子衛道之書而遏人欲存天理. 學庸孟皆言誠而論語不言誠. 論庸孟皆言中而大學不言中. 蓋論乃示人入道之門. 而凡言恭敬忠恕者皆誠之旨也. 學乃初學進德之基. 而要之止於至善者皆中之事也.

공부와 관통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말하자면, 사서 가운데 초학자의 공부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학』은 여타 경전들을 포괄하는 ‘큰 규모’와 공부의 구체적 ‘세부 절목’을 갖추고 있고⁷⁾, 이는 궁극적으로 ‘敬’공부로 요약된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개 이 마음이 이미 서서 이로 말미암아 格物·致知함으로써 사물의 이치를 다하면 [『중용』의] ‘존덕성이도문학[尊德性而道問學]’이라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誠意·正心함으로써 그 자신을 닦으면 [『맹자』의] ‘먼저 그 큰 것을 세우면 작은 것이 빼앗을 수 없다[先立其大者而小者不能奪]’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齊家·治國하여 平天下에 미치면 [『논어』의] ‘스스로를 닦아 백성을 편안히 한다’, “공경함으로 도타이 하여 천하기 평온해진다[修己以安百姓, 篤恭而天下平]는 것이니 이 모두가 처음부터 하루라도 敬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⁸⁾

이러한 이황의 경학에 대한 태도는 철저히 주희의 사서 체제를 존중하는 가운데 경전들 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강조하는 한편, 『대학』을 공부에 있어 근간으로 삼는 것이다. 그리고 8조목으로 제시된 『대학』의 공부는 결국 ‘경’공부로 수렴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성학’의 핵심 공부로 제시한다. 이러한 이황의 입장은 ‘거경궁리(居敬窮理)’로 대표되는 정주학의 공부론을 계승하는 것이지만, ‘격물치지(格物致知)’를 근간으로 삼는 『대학』 공부론을 ‘경’공부의 맥락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특징적

- 7) 『대학장구서』, 外有以極其規模之大, 而內有以盡其節目之詳者也. 『대학』에서 ‘규모’와 ‘절목’의 구체적 내용을 각각 3강령과 8조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8조목은 3강령에 포괄되므로 이는 강령과 조목을 함께 가리키는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동민, 「권근(權近) 『대학』 도설(圖說)의 구조적 특징과 그 학술사적 의의」, 『한국철학논집』 62, 2019.8, 16-19쪽 참조할 것.
- 8) 『퇴계집』 권7, 「진성학십도차병도(進聖學十圖筭并圖)」, <第4 大學圖>, 蓋此心則立, 由是格物致知, 以盡事物之理, 則所謂尊德性而道問學, 由是誠意正心以修其身, 則所謂先立其大者而小者不能奪, 由是齊家治國而及乎天下, 則所謂修己以安百姓, 篤恭而天下平, 是皆未始一日而離乎敬也, 然則敬之一字, 豈非聖學始終之要也哉.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2.2 권근과 이언적의 『대학』 개정의 입장

이황의 『대학』 해석 관점은, 주희의 『대학장구』 성립이후 이를 의문시 하면서 개정을 시도하는 송·명대 경학 흐름을 비판하면서 『장구』 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일차적으로 확인된다. 주희의 『대학장구』 체제와 구성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들은 송·명대 유학자는 물론 이황 전후의 조선 유학자들에게도 보이는데, 특히 주희의 「격물보망장」 보충을 회의적으로 보면서 『대학장구』 체제와 편집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퇴계집』 권11의 「답이중구(答李仲久)」에는 주희의 『대학』 해석과 관련해서 ‘착간설’의 입장 하에 격물치지장의 전문(傳文)을 재구성한 몇몇 학자의 논의에 대해 이황의 입장을 묻는 내용이 등장한다.

보내주신 여러 말들은 『대학』의 ‘지지(知止)’ 관련 몇몇 구절들을 ‘격물치지’장의 착간(錯簡)으로 여겨, 이것들을 뽑아내서 저 ‘격물치지’장에 보충하고자 한 것으로, 先儒들이 여러 이론을 인용한 것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본 권근 선생의 『입학도설(入學圖說)』에 이 이론이 있었고, 이어서 본 『宋史』 王魯齋(王柏, 1197-1274) 本傳에도 이 설이 있었으며, 최근에 다시 이언적 선생이 이를 논하는데 매우 힘쓰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마음으로 매번 이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성전(禹性傳, 1542-1593)⁹⁾을 만나 주위 사람들이 이에 대해 先儒가 논한 여러 설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전 편지에서 견해를 구해 의혹을 제거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보내주신 글을 읽으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보내주신 편지에서 중국의 儒士들의 독서와 식견의 차이가 이처럼 다양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결단코 주자의 설을 따라야 합니다.**¹⁰⁾

9) 조선 중기 문인. 자 경선(景善), 호 추연(秋淵), 시호 문강(文康), 본관 단양(丹陽). 현령 언겸(彦謙)의 아들, 허엽(許曄)의 사위.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났으며, 성리학(性理學)에 뜻을 두고, 이황(李滉)에게 수학했다.

이 편지에서 언급되는 ‘선유들의 여러 이론’은 대체로 경1장의 “知止而后有定, 定而后能靜, 靜而后能安, 安而后能慮, 慮而后能得. 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 구절과 “子曰: 聽訟吾猶人也...此謂知本, 此謂知之至也.”의 이른바 청송장(聽訟章)을 ‘치지재격물(致知在格物)’의 전문으로 삼으면서, 본래 『대학』에는 꺾문이 없으므로 ‘격물보망장’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이 입장은 그 연원이 오래된 것으로 송대 동괴(董槐, 1187-1262), 왕백(王柏, 1197-1274), 황진(黃震, 1218-1280) 등의 저작 속에서 이미 제기된 것이다.¹¹⁾ 이황은 이 입장을 권근의 『입학도설(入學圖說)』과 『송사·본전(宋史·本傳)』의 왕백에 대한 서술, 그리고 이언적의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를 통해 접하고 있었고, 우경선을 통해 당시 명에서 유통되던 중국 유학자들의 유사한 학설을 소개받은 것이다.¹²⁾ 위 인용문은 이황이 이 입장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며 주희의 입장을 따라야 한다는 판단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이황의 태도는 앞서 권근이 『입학도설』에서 ‘착간설’을 배척하면서 주희의 「격물보망장」을 옹호한 논의와 맥이 닿아있는 것이다. 우선 권근의 논의를 살펴보자. 그는 다음과 같이 문답한다.

-
- 10) 『퇴계집』 권11, 「답이중구」 「別紙」, 所論今獻彙言, 以『大學』知止等數節, 爲格物致知章之錯簡, 欲掇此而補彼, 所引先儒諸說, 備矣. 況曩見『陽村入學圖說』, 有此說, 續見『宋史』王魯齋本傳, 亦云曾有此說, 近又見李玉山先生論此甚力, 心每疑之, 適見禹上舍性傳, 聞左右得先儒論此諸說, 故前書求見以祛惑, 茲蒙示及, 何幸如之. 來論謂中朝儒士讀書識見之出人萬萬也如此, 然今當決從朱子之說.
- 11) 송·명 시기 『대학』 개정을 주장한 학자들과 저작에 대해서는 최석기, 『조선시대 『大學章句』 改定과 그에 관한 論辨』, 보고사, 50-55쪽 참조.
- 12) 앞서 언급한 송대 학자들 이후 명대에 이르는 유학자들 중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한 사람은 송림(宋濂, 1310-1381), 방효유(方孝孺), 채청(蔡清)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대학』 해설은 동괴와 차약수의 설을 이어받은 것이다. 이황이 우경선을 만나 선유의 설을 듣게 되었다는 것은 이들의 해설이 조선에 유포되어 있었음을 암시한다.

문: “선현인 동괴(董槐)는 『대학』 경문 가운데 ‘知止而後有定’에서 ‘則近道矣’까지 두 구절이 격물치지의 傳이라고 여겼고, 황진(黃震) 역시 이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하다면 과연 주자가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 “내가 일찍이 이것을 보았을 때는 그 깊은 생각과 탁월한 견해를 가슴에 담아두고 잊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또 몇 년 시간을 두고 지금 와서 살펴보니 온당치 못한 것이 있다. 저 ‘知止’라고 한 것은 ‘物格知至’ 이후의 공효인데, ‘格物致知’는 대학에서 처음으로 힘쓰는 것이다. 여러 『대학』의 傳이 ‘성의(誠意)’章 이하를 모두 공부로써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효를 먼저 말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리고 ‘能得’¹³⁾이라 한 것은 明明德과 新民이 모두 머물 곳을 얻는 일(得所止之事)을 말한 것으로, ‘致知’의 傳에 해당한다고 처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또한 이 구절을 致知의 傳으로 삼게 되면, 청송장(聽訟章)은 다시 귀착될 곳이 없게 된다. 주자가 이에 대해 어찌 깊이 살펴 처리하지 않았겠는가? 다만 ‘격물’을 궁리의 일로 여겨 외물을 막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다른 책으로써 증명할 필요가 없이 이 구절의 문세(文勢)에서 찾아 알 수 있는 것이다.¹⁴⁾

권근은 『대학장구』에서 주희가 제시한 체제, 즉 ‘공부(工夫)-공효(功效)-결어(結語)’의 순차적 서술에 입각한 경전 구성을 따른다. 이에 따르면, 經文의 “知止而后有定, ... 則近道矣”는 ‘物格知至’ 이후의 공효를 말한

13) 관련 맥락을 살피기 위해 『대학장구』 經1장을 다시 옮기면 다음과 같다.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 知止而后有定, 定而后能靜, 靜而后能安, 安而后能慮, 慮而后能得. 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

14) 권근, 『입학도설(入學圖說)』, 『대학지장지도(大學指掌之圖)』, 學者問曰:“先賢董公嘗以『大學』經中自‘知止而後有定’至‘則近道矣’兩節, 爲格物致知之傳, 黃氏亦取之矣. 是果能得朱子之所未得者歟?” 曰:“愚嘗觀此, 服其用意之深, 而所見之卓服膺不忘. 蓋亦有年以今考之有未安者, 夫所謂知止者物格知至以後之效, 而格物致知者, 大學最初用力之地也. 諸傳自誠意章而下, 皆以工夫而言, 不應於此處, 先以效言之也. 所謂能得者, 明明德, 新民, 皆得所止之事, 不應處及於致知之傳也. 且以此節爲致知之傳, 則聽訟章又無所着落矣. 朱子於此, 豈不處之審哉? 但所謂格物爲窮理之事而非扞格外物者, 則不必證以他書, 而於此節文勢可尋而知之矣. 既曰‘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

것으로, 격물치지 공부의 최종적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일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 설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의 ‘성의’ 장 이하에서 보이는 傳文이 모두 공부에 대한 서술로 이뤄져 있다는 점에서 ‘격물치지’장에만 예외를 인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권근은 이 경문을 격물치지의 전문으로 삼게 되면, ‘청송장’¹⁵⁾이 귀결되는 내용 역시 없어진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대학』 8조목 공부는 각각 그 ‘결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제기된 ‘착간설’들이 ‘청송장’을 ‘격물치지’에 대한 결어로 대신하여 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색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근의 관점은 『대학』의 체제에 대한 꼼꼼한 분석을 바탕으로, 당시 송·원대 학자들의 『대학』 개정에 대한 조선 유학의 비판적 검토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자체로 의의를 가진다.

다른 한편, 앞서 인용한 이황의 「답이중구」로 돌아가 살펴보면, 이황의 비판은 시기적으로 권근이 검토한 동과·황진의 설 ‘이후’의 『대학』 개정 논의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이황은 권근이 비판적으로 검토한 송·원대 유학자의 견해만이 아니라, 보다 직접적으로 이언적의 『대학장구보유』의 발간과 우경선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전해진 당시 명대 중국 유학의 개정론을 겨냥한 것이다. 여기에는 명대 이후 탈주자학적 『대학』 해석에 대한 비판의 의의가 함축되어 있다.¹⁶⁾

15) 子曰：「聽訟，吾猶人也，必也使無訟乎！」無情者不得盡其辭，大畏民志。此謂知本。 주희는 여기의 ‘此謂知本’을 연문으로 보고, 이를 생략한 채 ‘격물보망장’을 서술하고, 마지막에 ‘此謂知本，此謂知之至也.’로 맺고 있다.

16) 『退溪先生文集放證』 卷4, 제11권의 「答李仲久問目」에는 이전인(李全仁, 1516-1568, 이언적의 子)의 『關西問答』을 인용하면서 이황이 말한 ‘최근 중국 유학자(近世中國儒者)로 董槐(1187-1262), 黃震(1218-1280), 蔡清(1453-1508), 王柏(1197-1274), 宋濂(1310-1381), 方孝孺(1357-1402), 都穆(1458-1525), 羅欽順(1465-1547), 王守仁(1472-1529) 9명을 제시한다. 이 가운데 권근 이후 명대 유학자는 채정, 도목, 나흠순, 왕수인으로, 이황은 당시 중국에서 유입된 이들과 같은 탈주자학적 경학 해석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제차 『대학』 개정설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언적의 『대학장구보유』의 체제와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이언적은 『대학장구보유』를 집필한 이유, 즉 『대학장구』를 개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나는 일찍이 『대학』을 읽다가 이 章(격물장)에 이르러 언제나 본문을 볼 수 없음을 한탄하였는데, 최근에 중국의 대유(大儒)가 『대학』 편 안에서 그 궤문을 얻어 다시 장구(章句)를 저술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이에 감히 나의 주관적 견해로 경문(經文) 가운데 두 구절을 취하여 ‘격물치지’장의 문장으로 삼았다. 이를 반복하여 따져보고 완미해보니, 그 말이 충분히 뜻을 밝히는 것이어서 경문에 흠결됨이 없이 전문(傳文)의 뜻을 보완함이 있고, 또 위아래의 문장 뜻과도 맥락이 관통하였다. 비록 주자가 다시 일어나더라도 아마 여기에서 취함이 있을 것이다.¹⁷⁾

이언적은 ‘격물치지’장의 전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음을 한탄하면서, 『대학장구』 재편집에 관심을 두고, 직접 경문의 두 구절을 ‘격물치지’의 전문으로 가져와 재구성하였다고 한다. 그는 “知止而后有定...慮而后能得”과 “物有本末...則近道矣” 두 구절을 경문에서 빼고, 그 순서를 바꿔 “物有本末...則近道矣. 知止而后有定...慮而后能得.”로 도치시킨 뒤 “此謂知本, 此謂知之至也.” 붙여 격물치지의 전문으로 삼는다. 그리고 주희의 보망장을 이 전문의 주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언적의 『대학장구보유』는 큰 틀에서 동괴, 황진, 왕백 등 착간설과 맥을 같이 한다. 다만 이 책의 발문을 쓴 노수신(盧守愼, 1515-1590)의 지적과 같이, 그의 『대학장구보유』는 “物有本末...則近道矣”을 “知止而后有定...慮而后能得” 앞에 위치 지운다는 점에서 명의 유학자인 채청(蔡淸, 1453-1508)의 개정과 보다 유사하

17)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 「序」, 然愚嘗讀至於此, 每歎本文之未得見, 近歲聞中朝有大儒, 得其闕文於篇中, 更著章句, 欲得見之, 而不可得. 乃敢以臆見, 取經文中二節, 以爲格物致知章之文. 既而反覆參玩, 辭足義明, 無欠於經文, 而有補於傳義, 又與上下文義, 脈絡貫通. 雖晦庵復起, 亦或有取於斯矣.

다.18) 이는 그가 직·간접적으로 당시 명대 『대학』 개정론에 관심을 두고 그 영향을 받았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이언적은 청송장(聽訟章)을 8조목을 기술한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未之有也” 다음에 위치시키면서 정이의 개정본을 따른다는 점에서 기존의 ‘착간설’과 차이를 보인다.19)

이러한 이언적의 『대학』 해석은 경문, 즉 3강령과 8조목에 대한 관점에 있어 주희와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는 『대학장구보유』 서문에서 「우서(虞書)」의 “능히 큰 덕을 밝혀 九族을 친하게 여겨, 구족이 이미 화목하고서 백성을 공평하고 밝게 다스리니 백성이 밝아지고 萬邦이 화친하니 黎民이 이에 화합하였다”20)와 『서경』 「대우모」의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미하니, 오직 精一하여 진실로 그 中을 잡는다”21)라는 두 문장에 『대학』의 중지가 근본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여기에서 우서의 ‘克明俊德’을 곧 ‘명명덕’으로 보고, ‘以親九族’ 이후를 ‘新民’의 내용으로 삼는다. 또 「대우모」의 ‘惟精惟一’을 명명덕의 일로 보고, ‘允執厥中’을 명명덕의 ‘지어지선’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대학』 3강령을 ‘명명덕’의 공부를 위주로 파악한 것으로, ‘신민’은 명명덕에 의거한 ‘治人’의 과정[事]으로, ‘지어지선’은 ‘명명덕’의 공효로 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 8조목에 대해서도 이언적은 ‘明俊德’을 ‘수신’ 이전의 일로, ‘親九族’은 ‘제가’, ‘協和萬邦’은 ‘치국·평천하’의 일로 풀이하며, 격물·치지·성의·정심은 ‘惟精惟一’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精一’을 명명덕 공부로 보

18) 『대학장구보유』 「跋」, 乃董文靖公特拈知止·物有·聽訟三節, 爲格致傳, 與王黃宋方蔡公諸見皆同. 唯虛齋以中節居首, 至吾先生說, 與之暗合若符節. 但斷以其末節上係經文爲結語, 曰: 從程子者爲獨異.

19) 蔡清, 『四書蒙引』(四庫全書本) 卷1, 清竊謂: 諸先所定, 亦有未安者. 看來當先以物有本末一條〈云云〉, 然後續以知止而后有定〈云云〉, 而終以子曰聽訟吾猶人也〈云云〉, 如此則由粗以及精, 先自治而后治人, 亦古人爲學次第也. 今以知止居前, 知所先後居后, 則次序顛倒, 文理俱礙矣. 故清亦未敢全以爲然, 竊復更定於此以俟後之君子.

20) 『서경』 「堯典」, 克明俊德, 以親九族, 九族既睦, 平章百姓, 百姓昭明, 協和萬邦, 黎民於變時雍.

21) 『서경』 「大禹謨」,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는 그의 입장에서 이 8조목에 대한 설명 역시 ‘명명덕’의 공부와 그 공효로 정리될 수 있다. 이렇게 ‘명명덕’을 『대학』 공부의 종지로 보는 관점은 주희와 이후 논의할 이황의 관점과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주희는 「대학장구서」에서 “『대학』이라는 책은 과거 대학에서 사람을 가르치던 방법이다”²²⁾고 하고, 또 『장구』 서두에 정자(程子)의 말을 인용하며 “초학자가 덕에 들어가는 문”²³⁾이라고 제시한다. 주희는 『대학』이 초학자의 입문서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명명덕’을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明德’은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것으로 허령불昧(虛靈不昧)하여 모든 리를 구비하여 만사에 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기품에 구애되고 인욕에 가려지면 때때로 어두워진다. 그러나 그 본체의 밝음은 일찍이 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배우는 자는 마땅히 그것이 드러난 바에 인하여 마침내 밝아지도록 하여[明之] 그 처음을 회복[復其初]해야 한다.²⁴⁾

이언적이 인용하는 「우서」의 내용은 다분히 치자(治者)의 입장이 반영된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그가 ‘克明俊德’을 ‘명명덕’에 해당한다고 본 해석은 치자(治者)의 ‘수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희가 초학자의 ‘수신’으로 ‘명명덕’을 제시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주희에게서 그것은 ‘기품에 구애되고 인욕에 가려져 때때로 어두워지는’ 명덕을 다시 밝아지도록 하는[明之] 공부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또한 이언적은 주희에 따라 ‘親民’을 ‘新民’으로 고쳐 풀이하고 있지만, 주희가 ‘신민’을 ‘명명덕’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하여

22) 『대학장구』 「序」, 大學之書, 古之大學所以教人之法也.
 23) 『대학장구』 「序」, 子程子曰: “大學, 孔氏之遺書, 而初學入德之門也.”
 24) 『대학장구』, 경1장, 주희주: 明德者, 人之所得乎天, 而虛靈不昧, 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 但爲氣稟所拘, 人欲所蔽, 則有時而吳; 然其本體之明, 則有未嘗息者. 故學者當因其所發而遂明之, 以復其初也.

『고본대학』의 ‘親’을 ‘新’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 것과 달리, 그는 이를 ‘以親九族’과 연관시킴으로써 여전히 ‘親’의 의미를 남겨둔 채 ‘新民’을 수용한 것이다.

2.3 이황의 『대학』 개정론 비판

한국 유학사의 관점에서, 이언적이 『대학장구보유』에서 제시한 개정론은 기존의 ‘착간설’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 것이어서 이미 권근에 의해 일차적으로 거부된 것이다. 그 이유를 다시 부연하자면, ‘知止而后有定’ 이하의 문장은 ‘격물’의 공효로서 ‘物格知至’와 관련된 것이지, 결코 『대학』 8조목 체제에서 공부의 착수처에 해당하는 ‘격물치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대학』이라는 책을 ‘초학자의 입문서’로 규정하는 주희의 의도에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권근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언적이 재차 『대학』 개정을 시도한 것은 그가 당시 명대 유학자들의 『대학』 개정 움직임에 편승하여 새로운 해석을 제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황은 『답이중구』에서 이 시기 다시 등장한 『대학』 개정론에 대해 매우 분석적인 비판을 이어간다. 그 논의는 기본적으로 권근과 마찬가지로 주희의 『대학장구』 체제를 옹호하면서 ‘공부’와 ‘공효’ 구분, 그리고 공부의 귀결로서 ‘결어’의 구성을 분석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비판에는 이언적의 『대학장구보유』의 출간과 명대 유학자들의 『대학』 개정 및 재해석과 관련된 논의가 조선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함축되어 있다. 『답이중구』에 나타난 이황의 비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자. 이 비판은 크게 3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이황은 다음과 같이 논한다.

체유의 설에 따를 수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① 경문(經文) 삼강령(三綱領)에는 공부(工夫)와 공효(功效)가 있고서 결어(結語)

가 있으며, 팔조목(八條目)에도 공부와 공효가 있고서 곁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유의 설은 삼강령에만 유독 공효와 곁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止於至善’ 다음에 곧바로 ‘古之欲明明德’ 이하의 말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말의 의미가 급박하고 이치의 심오함[理趣]이 빠지게 되니,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② 전문(傳文)의 여러 예시들은 공부를 말하면서 그 공효에 이르는 경우, 혹은 단지 병통이 되는 곳을 말함으로써 공부해야 할 지점을 드러내는 경우는 있지만, 한갓 공효만 말할 뿐 다른 것에 미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知止’ 이하 1절은 知止의 공효가 될 뿐이고, ‘物有本末’ 1절은 앞 문장을 통틀어 결론지은 것이지, 격물치지를 해석한 의미를 볼 수 없습니다. 청송장(聽訟章)의 경우도 수기치인의 본말이 있음을 말한 것일 뿐, 격물치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역지로 이 구절들을 끌어다가 격물치지의 傳으로 삼았는데, 애당초 격물의 공효도 없고 치지의 의미도 없으니,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²⁵⁾

이황이 비판한 ‘제유의 설’은 동괴, 왕백 등을 거쳐 명대 채청, 그리고 이언적에 이르는 ‘착간설’을 가리킨다. 이황이 문제시 한 이 입장의 특징은 첫째로, 이언적의 『대학장구보유』와 같이 『대학』 經文에서 (가)‘知止而后有定...慮而后能得’과 이어지는 (나)‘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를 탈각시키고, ‘古之欲明明德’이하의 팔조목을 ‘止於至善’ 뒤에 붙여 재구성한 것이다. 둘째로, (가)‘知止而后有定...慮而后能得’과 (나)‘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 그리고 이른바 (다)‘청송장’ 즉 ‘子曰: 聽訟吾猶人也...此謂知本, 此謂知之至也.’ 구절을 조합하여 격물치지장의 傳文으로 삼는 것이다.²⁶⁾

25) 『퇴계집』 권11, 「답이중구」 「別紙」, 諸儒之說. 有不可從者三焉. 經文三綱領. 有工夫功效而有結. 八條目. 亦有工夫功效而有結. 若如諸說. 則三綱獨無功效與結. 止於至善之下. 卽係以古之欲明明德云爾. 語意急促. 理趣闕略. 一也. 傳之諸例. 有言工夫而及功效者. 或只言病處. 以見用功之地者. 未有徒言功效而不及他者. 今知止一節. 但爲知止之效. 物有本末一節. 通結上文. 而未見有釋格物致知之義. 至如聽訟章. 亦言修己治人之有本末耳. 尤不關於格致. 今強引以爲格物致知之傳. 初無格物之功. 又無致知之義. 二也.

이에 대한 이황의 첫 번째 비판은 주희의 『대학장구』 체제에 기반하여 내용적 분석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인용문에 제시된 ①의 비판은 주희의 『대학장구』의 經1장이 삼강령과 팔조목으로 구분되어 각각 공부-공효-결어의 일관된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반해, ‘제유의 설’은 공효에 해당하는 (가)와 결어에 해당하는 (나)를 탈각시켜 “말의 의미가 급박하고 이치의 심오함[理趣]이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권근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명명덕-신민-지어지선의 3강령 공부의 공효로서 ‘知止’이후의 ‘定-靜-安-慮-得’을 독해한 것이다.

②의 비판은 ‘제유의 설’이 3강령의 공효에 해당하는 (가)와 결어에 해당하는 (나)를 격물치지장의 전문으로 삼고 있는데, 여타 『대학』의 傳文들이 ‘공부’를 위주로 서술되어 있어, 이처럼 공효와 결어에 해당하는 내용만으로 구성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또한 ①의 비판에 이어 (가)와 (나)는 3강령의 공효와 결어로 적합하지만 ‘격물치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 나아가 (다) 청송장은 격물치지가 아닌 ‘수기치인’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것은 (가) (나) (다)의 해당 구절에 ‘知’와 관련된 문구들, 즉 ‘知止’, ‘知所先後’, ‘知本’, ‘知之至’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격물치지’와 관련된 구절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황은 위 인용문에 이어 “여러 유자들은 한갓 이 몇몇 구절 가운데 ‘知止’, ‘知先後’, ‘知本’ 등의 말이 있는 것만 보고, 그것들을 옮겨 격물치지의 전문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다시 이 몇몇 구절의 문장에 전혀 격물치지의 의미가 없어 [주자의] 「격물보전」의 이로움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시다. 그리하

26) (가) 知止而后有定...慮而后能得’, (나) 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 (다) 聽訟章의 조합과 배치는 착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 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동귀는 (가)-(다)의 순서를, 채정은 (나)-(가)-(다)의 순서를 주장한다. 이언적은 (다) 聽訟章을 경문에 포함시켜 정이의 개정본과 유사한 구성을 채택하면서, 격물치지 전문은 (나)-(가)의 순서로 배치한 뒤 ‘此謂知本, 此謂知之至也.’를 덧붙인다.

여 마침내 경문을 깨뜨리는 죄를 얻으니 그 어찌 옳겠습니까?”²⁷⁾ 라고 힐난한다.

이러한 이황의 두 번째 비판 역시 앞서 권근의 비판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권근 역시 “여러 傳이 ‘誠意’章 이하를 모두 공부로써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먼저 공효로 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지적하며, “주자가 이에 대해 어찌 깊이 살펴 처리하지 않았겠는가?”고 한다. 이황은 여기서 더 나아가 ‘격물치지와 관련이 없다[尤不關於格致]’, ‘격물보전’의 이로움을 볼 수 없다[未見補傳之益]’고 하여, 그 비판의 초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는 격물치지 해석에 있어 ‘제유의 설’은 주희의 「격물보망장」이 가지는 의의와 위상을 그들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 보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이황의 『대학』 해석이 철저히 주희의 「격물보망장」을 중심으로 한 관점에 입각해 있음을 나타낸다.

이황의 세 번째 비판은 이언적의 本末 논의를 비판하면서 『대학』 본문 전체를 수기와 치인의 본말 구도로 조망하는 주희의 장구 체제를 옹호하는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다.

③ 강령과 조목 속에 비록 本末에 대해 말한 것이 없지만, 이 두 글자는 강령의 결어에 한 번 보이고, 여전히 충분치 않아 조목의 결어에 다시 보입니다. 진실로 배우는 자들이 여기에서 본과 末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 그가 修己·治人의 도에 있어서 모두 선후의 순서와 경중의 차례를 잃어버려 거꾸로 행동하고 거슬러 시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틀림없이 이와 같이 의미를 극진히 한 것입니다. 전문은 이에 대해서도 다시 ‘본말’ 두 글자를 들어 풀이하였는데, 즉 先後終始·厚薄이라 말한 것에는 모두 본말의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 강령과 조목 속에 이 두 글자가 없다고 하여 傳文을 本末로 해석

27) 같은 글, 諸儒徒見此數節中有知止-知先後-知本等語. 意謂可移之以爲格致之傳. 更不思數節之文. 頓無格致之義. 未見補傳之益. 適得破經之罪. 其可乎哉?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것은 생각하지 않음이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²⁸⁾

이언적은 “物有本末, 事有終始” 구절을 격물치지 전문으로 삼으면서, 物과 事의 本末과 終始를 아는 것을 격물치지의 공부로 본다. 그는 “대학에서 처음 가르칠 적에 반드시 학자들로 하여금 모든 천하의 사물에 나아가 그 본말종시의 리를 궁구하여 이르지 않음이 없게 하였다”²⁹⁾고 한다. 그는 ‘본말종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주희의 「장구」를 비판하고 있다.

五者(五倫)의 理가 마음에 보존된 것이 ‘本’이고, 事に 나타난 것이 ‘末’이다. 교제함이 禮에 달려있어 어릴 때는 사랑할 줄 알고 성장해서는 공경할 줄 아는 것은 ‘始’이고, 각기 그 법도를 따라 그 도를 다하기를 종신토록 쇠미해지지 않게 하는 것이 ‘終’이다. 마음에 보존하지 않고 그 事를 잘 처리하는 자는 없으며, 그 ‘始’를 먼저 하지 않고 그 ‘終’을 잘 처리하는 자도 없다. 그렇다면 ‘物有本末, 事有終始’의 뜻이 포괄하는 바가 매우 광범위한데, 주지는 다만 明德과 新民으로써 物의 本末로 삼고, 知止와 能得으로써 事의 終始로 삼으니, 그 뜻이 편협하고 두루하지 못한 것이다.³⁰⁾

28) 『퇴계집』 권11, 「답이중구」 「別紙」, 綱領條目之中. 雖無本末之云. 然此二字. 一見於綱領之結. 猶未足. 再見於條目之結者. 誠以學者於此. 不知其有本有末. 則其於修己治人之道. 皆失其先後之序. 輕重之倫. 倒行而逆施之. 故丁寧致意如此. 傳者至此. 亦特學二字而釋之. 則所謂先後終始厚薄. 皆在其中矣. 今以綱目中無二字. 而謂不當傳以釋之. 可謂不思之甚. 三也.

29) 이언적, 『속대학혹문』 4, 故大學始教, 必使學者即凡天下之事物, 莫不窮其本末終始之理, 無所不至.

30) 이언적, 『속대학혹문』 5, 五者之理, 存乎心者, 本也; 顯於事者, 末也. 交際之有禮, 孩提而知愛, 及長而知敬, 始也; 各循其則, 而盡其道, 至於沒身不衰者, 終也. 未有不存於心, 而能善其事者也; 未有不先其始, 而能善其終者也. 然則物有本末, 事有終始之意, 所該甚廣. 朱子獨以明德新民爲物之本末, 知止能得爲事之終始, 其意偏而不周矣.

이언적은 주희가 격물의 대상으로 제시한 ‘物の 理’를 ‘事·物 本末終始의 理’로 재해석한다.³¹⁾ 이황의 비판(③)은 이에 대해 ‘본말’을 주희의 「장구」체제에 입각해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황은 ‘본말’ 개념이 3강령과 8조목에서 공부로서 직접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주희의 「장구」에 따라 결어로 보이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본말’을 격물치지 공부로서 物과 事의 공부에 한정되지 않으며, 『대학』 전편을 관통하는 명명덕·신민, 곧 수기·치인 공부를 가리킨다고 본 것이다. 즉, ‘物有本末’은 3강령을 아우르는 내용으로서 8조목의 ‘修身爲本’, ‘其本亂而末治者否矣’와 상통하며, 「장구」 경1장의 ‘선후’, ‘중시’, ‘후박’의 공부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과 다를 바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해, 이언적은 ‘物有本末’의 ‘물’을 ‘격물치지’의 ‘물’로 해석하고, 8조목의 ‘성의’ 이후 각각의 공부를 ‘물’로 보고 그에 따른 본말이 있다고 간주하면서, ‘격물’은 이 공부 각각의 ‘본말’을 궁구하는 것이라고 한다. 반면, 이황은 주희의 견해에 따라 명명덕·신민 곧 수기·치인에 해당하는 공부과정 전체를 ‘물’로 보고, 명명덕/수기가 ‘본’이며 신민/치인이 ‘말’이 된다고 본 것이다. 이언적은 ‘물’의 범주를 ‘성의’에서 ‘평천하’에 이르는 전 과정으로 보아 각 공부마다 본말의 리를 궁구하는 ‘격물’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황은 주희의 해석에 따라 본말을 『대학』 강령의 명명덕과 신민으로 대비하면서 수신 공부에 해당하는 ‘격물·치지·성의·정심’이 ‘본’에 해당하는 주된 공부로서 강조한다.³²⁾

이와 같은 이황의 해석은 “지금은 마땅히 결단코 주자의 학설을 따라

31) 이언적의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이동희, 「李彦迪의 朱子 『大學章句』에 대한 비판적 연구」, 『유교사상연구』 제34집, 2008.12, 211-216을 참조할 것.

32) 주희의 다음 내용을 참조할 것. 『대학후문』 5, 曰: “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 何也?” 曰: “此結上文兩節之意也. 明德·新民, 兩物而內外相對, 故曰本末; 知止·能得一事而首尾相因, 故曰終始. 誠知先其本而後其末, 先其始而後其終也, 則其進爲有序而至於道也不遠矣.” 『대학후문』 6, 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者, 明明德之事也. 齊家·治國·平天下者, 新民之事也.

야 한다[今當決從朱子之說]”고 말한 데에서 보이듯, 주희의 『장구』체제를 옹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대학』 해석을 둘러싼 주희의 「장구」와 이에 대해 재해석을 시도하는 학자들을 대장(大匠)과 양공(良工)에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이곳에 큰 집이 있다고 합시다. 정침(正寢: 제사를 지내는 몸체의 방)은 규모가 크게 하려하여 흠이 없고, 낭무(廊廡: 정전(正殿) 아래로 동서(東西)에 붙여 지은 부속건물) 가운데 한 곳에 缺處가 있어 大匠이 그것을 발견하고 부수를 하여 재목도 좋고 제도도 아름다워 조금도 의논할 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세상 사람들이 良工이라고 하는 어떤 자가 그것을 지나다 살펴보고서 자신이 그 집에 한 번도 손을 쓰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겨, 이에 억지로 생각과 지혜를 짜내 팔을 걷어 붙이고 일을 해서 대장이 보충한 곳을 헐어내고 정침의 몇 칸 재목을 빼다가 그가 헐어낸 곳을보완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침의 재목은 애초 낭무의 재목이 아니라 는 점을 생각지도 못하고 완전함을 도모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점은 볼 수 없고, 정침은 허물어진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무익할 뿐만 아니라 또 해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은 대체로 기이한 주장을 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후세 목수들은 모두 대장의 신묘한 계책을 궁구하지 않고 한결같이 신이한 것을 칭찬하여 이른바 良工이 한 일에 부화뇌동하니, 슬픈 일입니다.³³⁾

이항의 『대학』 개정 논의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은 권근의 비판을 이어 받은 ①의 입장이외에도 내용적으로 보다 심화된 ②와 ③의 비판적 관점

33) 『퇴계집』 권11, 「답이중구」 「別紙」, 今有巨室於此. 正寢輪奐無闕. 而廊廡有一缺處. 大匠見之. 作而補修. 材良制美. 少無可議. 其後有世所謂良工者. 過而相之. 恥己之一無措手於此室也. 於是. 強生意智. 攘臂其間. 折壞其所補處. 撤取正寢數架材來. 圖欲補完其所壞處. 更不計正寢之材初非廊廡之材也. 圖完處不見其完. 而寢屋則已成敗屋矣. 此所謂非徒無益. 而又害之者也. 然人情大率好立異趨新. 後至之工. 皆不究大匠之神算. 而一向贊歎. 和附於世所謂良工之所爲. 悲夫!

을 나타낸다는 데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의 비판의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황은 기존 개정설이 『대학장구』의 ‘격물치지’ 공부의 위상, 그리고 「격물보망장」의 가치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즉, 이언적을 비롯한 ‘착간설’ 주창자들은 ‘격물치지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그 전문으로 삼으려 하여, 주희의 「격물보망장」이 가진 ‘이로움’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대학』의 근본과 말단(本末)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공부하는 오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황이 보기에, 『대학』에서 근본이 되는 공부는 수기(修己)이며, 이는 내적인 ‘心’ 공부가 그 요체이다. ‘격물치지’는 이 『대학』의 ‘수기’공부에 있어서도 근본(本)이자 처음(始)의 공부이다. 주희의 「격물보망장」은 이 점을 밝히는 문장으로, 궁극적으로 ‘활연관통’에 도달하여 ‘마음의 전체대용’을 이루는 『대학』의 공부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다.

3. 이황의 ‘敬’ 위주 『대학』 해석

3.1 『대학』에서 ‘경’ 공부의 함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황의 『대학』 해석은 기본적으로 주희의 장구 체제를 고수함으로써 『대학』이 ‘수기(修己)’를 근본으로 삼는 공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시 유학자들의 『대학장구』에 대한 의구심을 물리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이황의 관점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대학』 공부가 최종적으로 ‘경(敬)’공부로 귀결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대학』의 근본 공부인 ‘격물치지’ 역시 ‘경’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나타낸다.

이황은 『성학십도』의 「소학도(小學圖)」와 「대학도(大學圖)」에 대한 설명에서 주희의 『대학훈문』을 인용하면서, 『소학』과 『대학』은 모두 ‘경’으로 관통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그는 「대학도」에서 “경이란 한 마음의 주재이며, 만사의 근본이다. 그 힘쓰는 방법을 알면 『소학』이 이것에 의지

하고서야 시작될 수 있음을 알게 되며, 『소학』이 이것에 의지하고 시작 되는 것임을 알면 『대학』이 이것에 의지하여야만 끝맺을 수 있는 것도 일관하여 의심하지 않게 된다”³⁴⁾라고 한 주희의 말을 인용한다. 또한 이황은 「소학도」에서 ‘이미 장성하였으나 「소학」과 「대학」의 공부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주희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내가 듣기로 ‘敬’이란 한 글자는 성학(聖學)의 처음과 끝을 이루는 것이라 한다. 『소학』을 하는 자는 여기에서 말미암지 않고서는 진실로 본원(本源)을 함양하고 쇠소·응대·진퇴의 예절과 육예의 가르침을 삼가지 못할 것이요, 『대학』을 하는 자도 여기에서 말미암지 않고서는 충명함을 개발하여 덕을 진전시키고 업을 닦아明德과 新民의 공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불행히 시기를 넘긴 후에 배우는 자는 진실로 여기[敬]에 힘써 『대학』에 나아가고 『소학』도 아울러 보충하면, 그 진전시키는 데에 장차 근본이 없어서 스스로 도달하지 못할 염려는 없을 것이다.”³⁵⁾

이황은 이렇게 주희를 인용하는 가운데 『소학』과 『대학』은 물론이고 『성학십도』의 구성 전체가 ‘敬’공부로 관철되고 있음을 밝힌다.³⁶⁾ 물론, 주희에 있어서도 ‘敬’은 『소학』과 『대학』 공부를 관통하는 하나의 ‘철상철하(徹上徹下)’ 공부이며, 『대학』 8조목 역시 이를 벗어나지 않는다.³⁷⁾

34) 『퇴계집』 권7, 「진성학십도차(進聖學十圖筭)」, <第四大學圖>, 敬者一心之主宰而萬事之本根也, 知其所以用力之方, 則知小學之不能無賴於此, 以爲始知小學之賴此以始, 則夫大學之不能無賴於此以爲終者, 可以一以貫之而無賴矣.(『대학혹문』 경1장)

35) 『퇴계집』 권7, 筭 「진성학십도차명도」, <第3 小學圖>, 吾聞敬之一字, 聖學之所以成始而成終者也. 爲『小學』者不由乎此, 固無以涵養本源, 而謹夫灑掃應對進退之節與夫六藝之教. 爲『大學』者不由乎此, 亦無以開發聰明, 進德修業, 而致夫明德新民之功也. 不幸過時而後學者, 誠能用力於此, 以進乎大, 而不害兼補乎其小, 則其所以進者, 將不患其無本而不能以自達矣.

36) 『퇴계집』 권7, 筭 「진성학십도차명도」, <第4 大學圖>, 敬者, 又徹上徹下, 著工收效, 皆當從事而勿失者也. 故朱子之說如彼, 而今茲十圖, 皆以敬爲主焉.

하지만 다른 한편, 주희는 위 언급과 같이 『소학』과 『대학』 공부를 대비시켜 논의하는 맥락에서는 『소학』은 ‘본원을 함양하는[涵養本原]’ 공부로서, 『대학』은 ‘덕을 진전시켜 업을 닦는[進德修業]’ 공부로서 각각의 영역을 가진다고 보고 그 구체적 공부 방식의 차이를 구분한다. 주희는 이 맥락에서 “어렸을 때 『소학』을 익히지 않으면 ‘그 놓아버린 마음을 거두어 그 덕성을 길러’ 『대학』의 기본을 만들 수 없고, 성장하여 『대학』에 나아가지 않으면 義理를 살피 사업을 실행하여 소학의 성공을 거두어 들일 수 없다”고 하여 그 차이를 말하고 있다.³⁸⁾ 따라서 『대학』을 통해 주희가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공부는 본원 함양의 ‘경’ 공부라기보다는 리를 체득하는 ‘격물치지’ 공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격물치지’의 공부는 ‘경’을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임은 분명하다.³⁹⁾ 다만 주희는 최소한 『대학장구』에서는 ‘敬’을 그 핵심적 공부로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이황의 『대학』해석에 특징은 주희가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대학장구』 내에서의 ‘경’ 공부 함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데 있다. 이황의 이같은 입장은 다음의 김이정(金而精)과의 문답에서 나타난다.

물었다. “『대학』의 큰 의의[大旨]에 대해 사람들이 모두 敬을 말하

-
- 37) 『주자어류』 권7 10항, 問: “大學與小學, 不是截然爲二. 小學是學其事, 大學是窮其理, 以盡其事否?” 曰: “只是一箇事. 小學是學事親, 學事長, 且直理會那事. 大學是就上面委曲詳究那理, 其所以事親是如何, 所以事長是如何./ 『주자어류』 권17 5항, “敬”字是徹頭徹尾工夫. 自格物·致知至治國·平天下, 皆不外此. 人傑(51이하)
- 38) 『대학후문』 경1장, “學之大小, 固有不同, 然其爲道則一而已. 是以方其幼也. 不習之於小學, 則無以收其放心, 養其德性, 而爲大學之基本. 及其長也, 不進之於大學, 則無以察夫義理, 措諸事業, 而收小學之成功. 是則學之大小所以不同, 特以少長所習之異宜, 而有高下淺深先後緩急之殊, 非若古今之辨, 義利之分, 判然如薰蕕冰炭之相反而不可以相入也.” 이황의 『성학집도』 「소학도」 설명에는 이 부분이 의도적으로 생략되어 있다.
- 39) 『주자어류』 권18 54항, 問: “格物, 敬爲主, 如何?” 曰: “敬者, 徹上徹下工夫.”

는데, 경전에서는 한 군데도 드러난 것이 없음은 어찌서입니까? 맨 첫장의 ‘明明德’이라는 한 구절을 큰 의미로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답했다. “『대학』 傳에 ‘至善에 그친다[止至善]’는 곳에서 ‘문왕이 공경하며 그쳤다[敬止]’는 설을 인용하면서 미루어 ‘다섯 가지 그치는 도’를 말하고, 절차탁마의 공부로 이었으니, 어찌 敬을 말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주자는 『혹문』 첫머리에서 『소학』과 『대학』은 모두 敬을 위주로 삼는다고 분명히 말했고, 또 ‘正心章’의 주에서 반복해서 그 의미를 다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의 큰 의미가 敬에 있다고 해도 옳지 않음을 없을 것이다. ‘명명덕’의 경우는 비록 『대학』의 큰 강령으로 삼고 있지만 큰 강령이라고 말하면 옳을 지라도 큰 의미라고 말하면 온당하지 않음이 있다.⁴⁰⁾

이 문답에서 이황은 『대학』의 큰 의의[大旨]가 敬임을 명백히 하면서, ‘명명덕’을 중시하는 『대학』 독해를 비판하고 있다.⁴¹⁾ 이는 앞서 ‘명명덕’을 위주로 서술된 이언적의 『보유』 「서」의 관점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이황은 『대학』의 종지를 ‘경’으로 보는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어지선’을 풀이한 『대학장구』 전3장의 ‘문왕(文王)이 경하며 그쳤다[文王敬止]’⁴²⁾는 표현이다. 주희는 이 구절의 주석으로 “敬止는 경하지 않음이 없어서 그치는 바에 편안함을 말한다”⁴³⁾라고 한다. 이황은 이를 통해 ‘지어지선’이라는 『대학』 공부의 공효는 곧 ‘敬’에 말미암는다

40) 『퇴계집』 권29, 「답김이정(答金而精)」, 『大學』大旨, 人皆言“敬”字, 而於經傳無一處著露者, 何如. 首章“明明德”一句, 爲作大旨看, 何如? 『大學』傳止至善處, 引文王敬止之說, 而推言 五止之道, 繼之以切磋琢磨之功, 豈可謂不言敬乎? 況朱子於『或問』之首, 明言『小學』·『大學』皆當以敬爲主, 又於“正心”章註, 反覆致意焉. 然則謂『大學』大旨在敬, 恐無不可, 若“明明德”雖爲『大學』之大綱領, 然謂之大綱領則可, 謂之大旨, 有所未穩.

41) ‘명명덕’을 『대학』의 핵심 요지로 보는 대표적 입장은 왕수인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42) 『대학장구』 전3, 詩云: 「穆穆文王, 於緇熙敬止! 」 爲人君, 止於仁; 爲人臣, 止於敬; 爲人子, 止於孝; 爲人父, 止於慈; 與國人文, 止於信.

43) 『대학장구』 전3 주희注, 敬止, 言其無不敬而安所止也.

고 해석한 것이다. 둘째, 앞서 논의한 『대학후문』 경1장에서 『소학』과 『대학』이 敬으로 관통되어 있다는 주희의 문장이다. 주희는 『소학』을 ‘본원함양’의 공부로 『대학』을 ‘진덕(進德)·수업(修業)’의 공부로 구분하며, 이는 각각 미발과 이발 공부로 제시한다. 이황은 『소학』과 『대학』이 미발과 이발의 공부로 대별될 수 있을지라도, 이는 ‘敬’으로 관통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셋째, ‘정심’(正心)장, 즉 『대학장구』 전7장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⁴⁴⁾는 구절에 대해 주희가 “마음이 보존[存]되지 못함이 있으면 그 몸을 점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군자는 반드시 여기에서 살펴[察] 敬함으로 곧게 한다. 그러한 뒤에 이 마음이 항상 보존되어 몸이 닳여지지 않음이 없게 된다”⁴⁵⁾라고 한 것이다. ‘정심’장의 이 구절은 ‘마음의 작용’ 측면에서 바르게 할 것을 요구하는 구절에 뒤이어 나오는 것으로, 이 맥락에서 敬은 또한 마음의 이발에 관철되어야 할 공부로 제시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이황은 이이와 왕래한 편지에서 주희가 ‘敬’과 동일시한 ‘계신공구(戒愼恐懼)’를 『대학』에서 말하지 않는다는 요로(饒魯)의 주장을 반박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체로 『대학』에서는 본래 계구(戒懼)를 말하지 않았습시다. 그러므로 주자도 ‘정심’(正心)장의 주석에서 ‘찰(察)’ 자만을 들어서 본문의 바른 뜻을 곧바로 해설하였을 뿐입니다. 다만 ‘시불견(視不見)’의 주에서 비로소 ‘존(存)’ 자와 ‘경(敬)’ 자를 끌어내어 말하고, 또한 세주(細注)를 통해 무심(無心)의 병통을 말했으므로, 이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 ‘계구’의 공구가 말하지 않은 가운데 들어 있을 뿐입니다. ... 물론 『대학』에서 계구를 말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지만 ‘고시

44) 『대학장구』 전7, 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

45) 『대학장구』 전7 주희注, 心有不存, 則無以檢其身, 是以君子必察乎此而敬以直之, 然後此心常存而身無不脩也.

(顧諟)’라 하고 ‘경지(敬止)’라 한 것이 있으니 그 속에 저절로 계구의 뜻을 겸하였고, ‘정(定)’이라 하고 ‘정(靜)’이라 한 것은 지지(知止)의 공효이지만 정(靜)할 때의 공부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⁴⁶⁾

여기에서 이황은 『대학』에 함축된 ‘계신공구’의 의미 2가지를 추가한다. 이것은 앞의 『대학』에서 ‘敬’의 의미와 중첩되는 것이다. 첫째로 이황은 傳 1장의 “하늘의 밝은 命을 **항상 살핀다**[顧諟天之明命]”⁴⁷⁾에서 ‘고시(顧諟)’를 ‘敬’의 의미로 보고 있다.⁴⁸⁾ 이것은 ‘정심’장의 주희 주에서 “군자는 반드시 여기에서 **살피[察] 敬함으로 곧게 한다**. 그러한 뒤에 이 마음이 항상 **보존[存]**되어 몸이 닳여지지 않음이 없게 된다”고 한 내용과 상통하는 것이다. 둘째로, 『대학장구』의 경문에 해당하는 “知止而后有定, 定而后能靜, 靜而后能安, ...”에서 ‘定’과 ‘靜’의 공부 역시 ‘계신공구’, 즉 경공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역시 앞서 ‘지어지선’의 공효가 ‘경’에 말미암는다는 입장과 상통하는 것이다.

3.2 ‘敬’ 공부로서 窮理와 致知, 그리고 眞知

이처럼 『대학』의 공부 과정을 ‘경’으로 보는 이황의 관점은 그것을

46) 『퇴계집』 권14, 「답이숙헌문목(答李叔獻問目)」, 饒氏謂『大學』不言戒懼, 來喻云云. 此段所疑, 正與精一執中無靜時工夫之說同病. 蓋「大學」固不言戒懼矣. 故朱子於正心章注, 亦只舉察字, 以直解本文正意. 惟於“視不見”注, 始拈出存字·敬字而言之, 亦因傳者說無心之病, 故以此救其病, 而戒懼之功, 隱然在不言中耳. ... 皆未嘗云正心章說戒懼也. 今來諭直以正心章當戒懼, 非也. 來喻云, 無戒懼之功, 何以明明德? 此則然矣. 故朱子說古人涵養本原, 「小學」已至, 所以「大學」直以格致爲先云, 又患後世之不能然, 則以敬字, 補「小學」之闕功. 今亦只當依此而用功, 又當知「大學」雖不言戒懼, 而有曰顧諟·曰敬止, 則其中自兼戒懼之意. 有曰定·曰靜, 雖是知止之效, 而靜時工夫, 亦不外是.

47) 『대학장구』 전1, 太甲曰:「顧諟天之明命。」

48) 이에 대한 주희의 주는 “顧, 謂常目在之也. 諟, 猶此也, 或曰審也. 天之明命, 卽天之所以與我, 而我之所以爲德者也. 常目在之, 則無時不明矣.” 여기에서는 이황의 의도에 따라 ‘諟’를 ‘審’으로 해석하여 ‘살핀다’로 번역하였다.

『소학』의 ‘본원함양’으로서 ‘경’ 공부로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태와 접하는 마음의 작용 측면 곧 이발에서의 ‘경’ 공부에 주목한 것이다. 이것은 『대학장구』에서 주희가 강조하는 ‘격물치지’ 공부가 이발의 경 공부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음을 함축한다. 나아가 ‘격물치지’로 대표되는 궁리(窮理)와 치지(致知) 공부 역시 ‘경’을 근본으로 삼는 심법(心法)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는 선조(宣祖)에게 올린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고 있다.

敬을 근본으로 삼아 궁리(窮理)하여 앎을 완성[致知]하고, 자신을 돌이켜 실천하는 것[反躬以踐實]이 바로 오묘한 심법(心法)이며, 도를 전하는 학문의 요체입니다. ... 또한 진정한 앎[眞知]과 실천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하나를 빠뜨릴 수 없으며, 사람의 두 다리처럼 서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자(程子)는 “致知하면서 敬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말하였고, 주자(朱子)는 “몸소 실천하는 가운데 공부가 있지 않다면 또한 窮理한 것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두 가지 공부는 합하여 말하자면 서로가 처음과 끝이 되는 것이고, 나누어 말하자면 또 각각 처음과 끝이 있는 것입니다.⁴⁹⁾

이황은 궁리에서 치지, 자기 반성[反躬]에서 실천[踐實]의 공부 과정에서 ‘경’을 근본으로 삼는 마음의 운용이 관건이 된다고 본다. 이 두 과정은 상호 중시가 되는 관계로서 이황은 전자를 ‘치지’ 또는 ‘진지(眞知)’로, 후자를 ‘실천’ 또는 ‘역행(力行)’으로 설명하면서, 『대학』의 8조목 공부와 연계시킨다. 그는 「무진육조소」에서 『대학』 8조목의 내용을 ‘치지’와 ‘역행’의 두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다음의 서술을 살펴보자.

49) 『퇴계집』 권6, 「무진육조소」, 至如敬以爲本, 而窮理以致知, 反躬以踐實, 此乃妙心法, 而傳道學之要, <帝王之與恆人, 豈有異哉> 抑眞知與實踐, 如車兩輪, 闕一不可, 如人兩腳, 相待互進. 故程子曰 “未有致知而不在敬者.” 朱子曰 “若躬行上未有工夫, 亦無窮理處.” 是以, 二者之功, 合而言之, 相爲始終, 分而言之, 則又各自有始終焉.

敬을 주로 삼아 사물마다 그 소당연과 소이연을 궁구하지 않음이 없고[窮理], 반복하여 침잠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체인(體認)하여 그 지극함을 다해야 합니다[致知]. 오랜 세월이 지나 공부가 깊어지면 일시에 자신도 모르게 씻은 듯 융석하며 활연관통하는 데 이르면 비로소 이른바 ‘체용일용, 현미무간’이 참으로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인심의 위태로움과 도심의 미미함에 미혹되지 않고, 불현듯 정일(精一)한 가운데 中을 잡을 수 있게 되니, 이것을 일러 진지(眞知)라고 합니다.⁵⁰⁾

여기에서 이황은 ‘경’을 위주로 한 ‘궁리’와 ‘치지’의 공부를 통해 ‘진지’에 이르는 공부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주희의 「격물보망장」을 부연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다만 「보망장」의 ‘활연관통’ 다음에 등장하는 ‘내 마음의 전체대용(全體大用)’을 정이가 말한 ‘체용일용, 현미무간’으로 대체한 것, 또 이를 ‘물격(物格)’과 ‘지지지(知之至)’로 귀결시키는 대신 ‘유정유일, 현미무간(惟精惟一, 允執厥中)’의 심법으로 설명하면서 ‘진지’의 의미로 귀결시키는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⁵¹⁾ 이것은 이황이 격물·치지의 공부가 외부 사물을 향한 의식 주체의 인식 활동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상 사물과의 관계에서 인심과 도심을 분변함으로써 ‘中’에 도달하는 주체의 내적 도덕의식 확보를 통해 ‘진지’ 곧 도덕적 삶의 완성에 이르는 공부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와 같이 이황은 공부에 있어 치지와 역행의 구분을 『대학』 8조목에 연계시키면서, 치지를 격물궁리를 통해 ‘진지’에 이르는 공부로 제시한다. 그는 이 ‘치지’의

50) 『퇴계집』 권6, 「무진육조소」, 敬以爲主, 而事事物物, 莫不窮其所當然與其所以然之故, 沈潛反覆, 玩索體認而極其至. 至於歲月之久, 功力之深, 而一朝不覺其有灑然融釋, 豁然貫通處, 則始知所謂體用一源, 顯微無間者, 真是其然. 而不迷於危微, 不眩於精一而中可執, 此之謂眞知也.

51) 주희는 치지 공부를 정심에 선행되어야 할 공부로 보며, ‘함양’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어류』 권9 29항, 問致知涵養先後. 曰: “須先致知而後涵養.” 問: “伊川言: ‘未有致知而不在敬.’ 如何?” 曰: “此是大綱說. 要窮理, 須是著意. 不著意, 如何會理會得分曉.”

공부 과정을 『중용』과 관련시켜 더욱 세분화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이 청컨대 다시 致知의 일로 말하겠습니다. 나의 성정과 형색, 가까운 일상생활의 윤리에서 부터 천지만물과 과거와 현재까지의 다양한 변화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진실한 理와 지극히 함당한 법칙이 보존되지 않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천연의 본래 가진 中입니다. 그래서 배움은 넓지 않아서는 안되고[博學], 물음은 자세하지 않아서는 안되며[審問], 생각은 신중하지 않아서는 안되고[慎思], 분별은 명료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明辯]. 이 네 가지가 치지의 조목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신중하게 생각함[慎思]이 가장 무겁습니다.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구하여 징험함이 있으면 그것을 얻었다고 합니다. 마음에서 징험하여 그 리욕선악의 기미와 의리시비의 판단을 명료하게 분별할 수 있어, 정밀하게 연마하지 않음이 없고 조금의 오류도 없게 되면, 이른바 [인심과 도심이] 위태롭고 미미한 까닭, 정밀하고 한결같이[精一] 하는 방법이 이와 같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아[眞知] 의심할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⁵²⁾

이황은 치지의 일을 박학, 심문, 신사, 명변의 4조목으로 제시하면서, 생각함[思]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제시한다.⁵³⁾ 그리고 이 ‘생각함’으로 통해 인심과 도심의 분별에 의심 없는 ‘진지’에 이르러야 함을 다시 강

52) 『퇴계집』 권6, 「무진육조소」, 其於致知之方, 力行之功, 亦可謂有其始矣. 然而愚臣妄意, 恐不可執此而遽以爲能知·能行也. 臣請先以致知一事言之, 自吾之性情形色日用彝倫之近, 以至於天地萬物古今事變之多, 莫不有至實之理, 至當之則存焉. 即所謂天然自有之中也. 故學之不可以不博, 問之不可以不審, 思之不可以不慎, 辨之不可以不明, 四者, 致知之目的也. 而四者之中, 慎思爲尤重. 思者何也? 求諸心而有驗·有得之謂也. 能驗於心而明辨其理欲善惡之幾, 義利是非之判, 無不研精, 無少差謬, 則所謂危微之故, 精一之法, 可以眞知其如此而無疑矣.

53) ‘치지’를 박학, 심문, 신사, 명변의 공부로 설명하는 것은 정이에게서 비롯된다. 『河南程氏遺書』 권15, 150항, 知至則當至之, 知終則當遂一無遂字. 終之, 須以知爲本. 知之深, 則行之必至, 無有知之而不能行者. 知而不能行, 只是知得淺. 飢而不食鳥喙, 人不蹈水火, 只是知. 人爲不善, 只爲不知. 知至而至之, 知幾之事, 故可與幾. 知終而終之, 故可與存義. 知至是致知, 博學·明辨·審問·慎思·皆致知, 知至之事, 篤行便是終之. 如始條理, 終條理, 因其始條理, 故能終條理, 猶知至即能終之.

조한다. 이황은 ‘치지’를 통해 ‘진지’에 이르는 데 있어, 이 ‘생각함’의 과정이 핵심이라고 본다. 이 과정은 ‘마음에서 징험함’으로써 인심과 도심을 명료하게 분별하는 ‘정일(精一)’한 의식에 도달하도록 한다. 이러한 ‘치지’의 공부의 비록 ‘박학’과 ‘심문’의 단계에서는 외향적 도덕 지식의 축적 과정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이황이 가장 중시하는 ‘신사’와 ‘명변’은 내향적 도덕 성찰 과정을 가리킨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이황은 『대학』의 격물·치지가 궁극적으로 ‘中’의 도덕의식을 확보하는 공부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다른 한편, 「무진육조소」의 이어지는 ‘역행’에 대한 논의는 『대학』의 여타 공부 과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황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이 청컨대 다시 역행(力行)의 일로 말하겠습니다. 성의(誠意)는 반드시 기미에서 살펴 한 티끌만큼의 성실하지 않음이 없어야 하고, 정심(正心)은 반드시 동정을 살펴 하나의 일도 바르지 않음이 없어야 하고, 수신(修身)은 한쪽으로 편벽됨에 빠지지 말고, 제가(齊家)는 한쪽으로 치우침에 친압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구(戒懼)하고 근독(謹獨)하며 뜻을 굳세게 하여 그치지 말아야 하니, 이 몇 가지가 ‘역행’의 조목입니다. 몇 가지 가운데心和意가 가장 관건이 됩니다.心은 천군(天君)이고意는 그것이 발한 것입니다. 먼저 그 발하는 것을 진실[誠]하게 하면 한번 진실됨으로 모든 거짓을 녹일 수 있으니, 이로써 그 천군을 바르게 하면 백체가 명령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 성실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⁵⁴⁾

이황은 『대학』 8조목에서 격물·치지 이후의 성의, 정심, 수신, 제가를

54) 『퇴계집』 권6, 「무진육조소」, 臣請復以力行之事言之, 誠意必審於幾微, 而無一毫之不實. 正心必察於動靜, 而無一事之不正. 修身則勿陷於一辟, 齊家則毋狃於一偏. 戒懼而謹獨, 強志而不息, 數者, 力行之目也. 而數者之中, 心意爲最關, 心爲天君, 而意其發也. 先誠其所發, 則一誠足以消萬僞. 以正其天君, 則百體從令, 而所踐無非實矣.

‘역행’의 공부 과정으로 포괄한다. 이것은 앞서 ‘치지’에 있어 진지에 도달하는 공부와 구별되는 실천적 공부이다. 즉, ‘치지’ 공부가 궁극적으로 본연의 도덕의식으로서 ‘中’을 확보하는 내향적 공부라면, ‘역행’이 포괄하는 공부는 구체적 사태[事] 속에서 대상과 관계하는 의식의 도덕적 적절함을 확보하는 외향적 공부라고 할 수 있다. 이황은 이 실천적 조목에 있어 관건이 되는 것은 心과 意, 즉 ‘정심’과 ‘성의’ 공부라고 본다. 그것은 수신과 제가의 경우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편벽되는’ 폐해를 방지하는 것은 정심과 성의에 달려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수신과 제가는 ‘계구하고 근독하며 뜻을 굳세게 하여 그치지 않는’ 공부에 다름 아니며, 이는 곧 성의·정심 공부에 함축된 것이다. 나아가 의와 심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황은 의가 심이 발한 것[心之所發]이라는 점에서 최종적으로는 심의 올바름을 확보하는 것이 ‘역행’이라는 실천적 공부의 요체가 됨을 밝히고 있다.

4. 나가는 말

이황의 『대학』 해석 입장은 기본적으로 주희의 『대학장구』 체제를 존중하는 가운데, 16세기 당시 중국과 조선 일각에서 논의되던 이른바 『대학』 개정론에 대한 비판 속에서 특징적 면모가 드러난다. 이 시기 『대학』 개정론은 대체로 주희의 ‘궐문설’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착간설’을 주창한 것이었고, 그것은 주희의 「격물보망장」이 『대학』 문장 구성에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격물치지’에 대한 전문은 기존 『고본대학』 내의 문장들을 재조합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별도로 논의를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희 공부론의 핵심 내용인 ‘격물치지’ 공부의 중대성을 약화시키는 의미가 있다.

이황은, 이전 시기 권근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착간설’에 입각한

『대학』 개정론이 『대학장구』 체계의 구성에 있어 일관성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보다 중요하게는 그것이 주희의 「격물보망장」의 의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즉, 착간설은 주자학의 ‘격물치지’ 공부론 함의를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격물치지’ 공부에 대해 비판적인 당시 탈주자학적 사조와 그 영향을 배제하고 주자학 본연의 공부론을 재구축하고자 한 이황의 학문적 입장에서 이는 자연스러운 반박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대학』 해석의 특징적 면모는 ‘격물치지’ 공부를 적극적으로 ‘경’공부와 연관시키는 것이다. 이황은 『대학장구』에서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경’ 개념을 구체적 공부의 맥락 속에서 이끌어내면서, 『대학』의 전 공부 과정이 궁극적으로 ‘경’으로 귀결된다고 논증한다. 물론 이황의 논의는 「격물보망장」과 『대학후문』을 비롯한 주희의 어록과 문집에서 유추된 것이지만, ‘경’ 공부의 연장선에서 ‘격물-공리’와 ‘치지’를 강조하면서 최종적으로 ‘진지(眞知)’ 곧 도덕적 삶의 완성을 주창한 것은, 그가 『대학』의 공부를 ‘心’ 위주의 내성(內省) 공부에 보다 강조점을 두어 해석하고 있음을 특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書經』

程顥·程頤, 『二程集』, 王孝魚 點校, 中華書局, 1981.

朱熹, 『朱子語類』, 黎靖德 編, 王星賢 點校, 中華書局, 1994.

_____, 『朱子全書』, 朱杰人, 嚴佐之, 劉永翔 主編, 上海古籍出版社, 2002.

蔡清, 『四書蒙引』(文淵閣四庫全書本) 권1, 2013.

권근, 『入學圖說』, 『韓國經學資料集成』 「大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8.

이언적, 『大學章句補遺』, 아세아문화사, 1973.

_____, 조창렬 역, 『(역주) 대학장구보유·속대학혹문』, 한국학술정보, 2008.

이황, 『退溪集』, 『韓國文集叢刊』 29-31卷, 民族文化推進會, 1989.

_____, 『增補退溪全書』,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1985.

_____, 『定本退溪全書』, 退溪學研究院, 2006.

陳來, 이종란 역, 『주희의 철학』, 예문서원, 2002.

최석기, 『조선시대 『大學章句』 改定과 그에 관한 論辨』, 보고사, 2011.

정도원, 『퇴계 이황과 16세기 유학』, 문사철, 2010.

이동희, 「李彦迪의 朱子『大學章句』에 대한 비판적 연구」, 『유교사상연구』 제 34집, 2008.12.

김동민, 「권근(權近) 『대학』 도설(圖說)의 구조적 특징과 그 학술사적 의의」, 『한국철학논집』 62, 2019.8.

The Characteristic Aspect in Yi Hwang's Interpretation of *Great Learning*

Lee, Hyun-su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 aspects of Toegye Yi Hwang 李滉's interpretation of *Great Learning* 大學 in the context of history in the research of Confucian classics 經學史, and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his interpretation of *Great Learning* in cultivation theory. Yi Hwang fully advocates Zhu Xi's *Interpretation of Great Learning* 大學章句, criticizes the curriculum of attempting revision. While he emphasizes the significance of Zhu Xi's "Gewubuwangzhang 格物補亡章" he believes that the cultivation of *Great Learning* ultimately makes the reverent mindfulness 敬 the most important content, just like the cultivation presented in other Four Books 四書. Yi Hwang believes that the debates attempting to revise *Great Learning* did not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e "Gewubuwangzhang", which was a mistake that came from not grasping the implications of the Guwuzhizhi 格物致知 theory. This is natural for Yi Hwang's academic position to reconstruct the original cultivation theory of Zhuzixue 朱子學 by excluding the post-Zhuzixue thought and its influence at the time of criticizing the Guwuzhizhi theory. The characteristic aspect of *Great Learning* interpretation, which emerges from the perspective of Yi Hwang, is to actively associate the 'Guwuzhizhi' with 'reverent mindfulness' by drawing out the concept of 'reverent mindfulness' that is not directly presented in the context of *Great Learning*.

퇴계 이황의 『대학』 해석에 있어 특징적 면모 / 이현선

Key words: Yi Hwang, *Great Learning* 大學, the reverent mindfulness 敬, the theory of *Great Learning* revision

이현선 e-mail: lechsun@gmail.com

투 고 일	2020년 01월 31일
심 사 일	2020년 02월 14일
게재확정	2020년 02월 14일